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6.3 지방선거 투표 독려 “CLS 위탁 배송기사 1만8000명 휴무”

2026. 5. 19.

coupang
logistics services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택배기사님들의 소중한 한 표를 응원합니다

5월 29·30일, 6월 3일은 투표하는 날

사전투표	본투표
5월 29일 (금) ~ 30일 (토)	6월 3일 (수)
06:00 ~ 18:00	06:00 ~ 18:00
장소 전국 사전투표소	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CLS, 영업점과 협력해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3일 동안 매일 6000명, 총 1만8000명 이상 휴무
- CLS 관계자 “6.3 지방선거 기간, 위탁배송업체와 협력해 휴무 독려해 투표 참여 보장 노력”

2026. 05. 19.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3일간 전국 택배기사 1만8000여 명이 휴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CLS는 지방선거 50일 전인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위탁배송업체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배송기사 참정권 보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투표일(5월29일, 30일)과 본투표일(6월3일) 총 3일 동안 투표 참여를 위해 휴무일을 조정해 줄 것을 독려했다.

영업점들도 CLS의 취지에 공감함은 물론, 일괄적인 휴무의 경우 다음날 업무가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해 총 3일 중 하루 이상 휴무를 취할 수 있도록 배송기사들의 배송일정 조정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3일간의 투표일 동안 매일 6000명 이상이 휴무를 신청해 3일 동안 총 1만8000명 이상이 휴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CLS는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 위탁 영업점들에 추가 협조 공문을 발송해 더 많은 배송기사들이 휴무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일정에 따라 2일 이상 휴무도 가능하다.

CLS 관계자는 “CLS는 업계 최초로 백업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에게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배송기사는 ‘주 5일 이하 업무’가 가능하다”며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영업점과 함께 휴무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통해 배송기사님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